

시대 한계 뛰어넘은 55대선사 이야기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정병조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진리 하나만을 찾겠다는 구도일념으로 바람까지 멈춰버린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오로지 불법을 전하고자 목숨도 버리는 이들이 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평범하게 살지 않는 이들이 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2,600여 년 전 인도서 시작된 부처님 가르침이 한반도에 전래된 지도 어느덧 1,600년이 훨씬 넘었다. 신라 땅에 들어온 부처님 가르침, 즉 불법(佛法)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법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책은 지금의 한국불교를 있게 한 대선사들의 시대적 고뇌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원행(願行)을 조명한 이야기다. 아도 화상서 용성 스님까지 한국불교사의 위대한 스승 55인의 삶과 수행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저자 정병조 금강대 총장(사진)은 불교 원류를 알고 싶다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인도철학과 인도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 하는 것이 정병조 총장의 의문이었다. 그렇게 학자로서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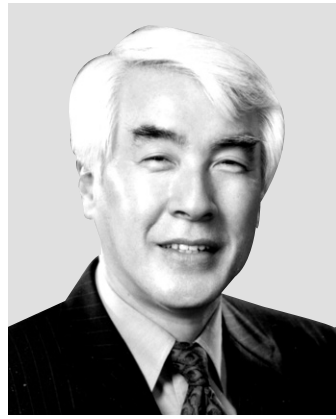
로 시작한 공부가 어느덧 깊은 신심으로 변화하면서, 저자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법을 이어온 대선사들의 삶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됐다.

또한 저자는 혼적조차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희미하게 남은 자료를 찾으면서, 그 속에서 오로지 진리를 전하던 선사들의 인간적 고뇌와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 책은 1992년 《보살도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저자의 원고를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 맞게 새로 정리한 것이다. 위대한 인물들의 독창적 모습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반조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대다수 조선 초 선승들처럼 지엄 스님이 말하는 교학의 바탕은 법화와 화엄사상이다. 지엄스님은 이상과 현실 사이서 고민했을 테지만 원광법사는 결연히 조화를 도모해 불교의 진면목을 과시한다. 이 부분을 불교의 신라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광의 걸사표는 아마 제갈량의 출사표를 능가하는 당대의 명문이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짐작한다. 이후 당과 신라는 선린 우호의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결코 당나라에 예속된 통일이 아니라 자주적 통일 기반이라는 점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오늘의 분단 상황을 떠올린다.

한국전쟁 이후 이른바 공비 토벌작전이 한창일 때, 오대산 역시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오대산 공비들은 상원사를 거점으로 노략질을 일삼았다. 홀몸이 짚은 공비 때문에



한국대선사들의 고뇌와 원행 조명
 20년만에 정리...연담, 능화 스님 추가
 의상 스님...수행과 학자의 길 양립

적지 않은 애로를 겪은 국군은 상원사와 월정사에 스님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젊은 장교는 한밤중에 대원들을 이끌고 상원사로 가서 절을 불태워야겠다고 했다.

한암 스님은 잠깐 기다리도록 이르고 가사와 장삼을 갈아입은 뒤 법당으로 들어가 좌선에 들었다. 그리고 불을 질러도 좋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은 이럴 경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당신은 장군의 부하이니 장군의 명령대로 불을 지르시오."라고 말이다.

한국불교는 산중불교의 분위기서 벗어나

새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중생을 위한 불교', '인간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불교'의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삶이 다양해지고 정보화된 현실 속에서 출가만을 고집하거나 무한정 확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역할 분담과 공동선의 추구가 미래 한국불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정병조 총장은 "이번 책에는 그동안 소개된 53선지식 이외에 연담유일 스님과 능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새로 추가해 넣었다"며 "이 책에 소개된 대다수의 선지식들을 존경하지만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수행과 학자의 길을 완벽하게 양립시킨 의상 스님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저자 정병조 총장은?

1970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 1986년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학위를 취득, 1980년부터 2011년까지 동 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사)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동국대 도서관장과 사회교육원 원장, 교무처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1년 정년퇴임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금강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정병조의 불교강좌> <인도철학 사상사> <지혜의 완성> <불교와 인도고전> <인도의 여정> <전환기의 한국불교> <정병조 불교입문> 등이 있다.

생활 속 수행과 기도 강조한 법문집

일우 스님의 가피이야기

일우 지음 | 현대북스 펴냄 | 1만3천원



"자, 모든 것을 내려놔 보십시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내 손에서, 내 머리에서,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어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이웃 친척 사회를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소홀했는지 가만히 내려놓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 보십시오. 미처 가까이 하지 못한 일들을, 미처 다독이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잘못됨을 솔직히 바라보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영혼의 어울림을 시작해 보십시오. 잘못했다, 잘못했다' 따위의 겨우아 주십시오."

대구 성관암사서 불자들에게 참된 불교 수행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일우 스님이, 수행하고 법문하는 틈틈이 느낀 크고 작은 깨

달음을 가법계 전달하는 예세이집 <일우 스님의 가피 이야기>를 냈다. 거창해하 꼭 수행이 아니고 어려워하 꼭 법문이 아니다. 생활하면서 실행하는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가 모두 수행이 될 수 있는데, 저자 역시 생활 속 수행과 생활 속 기도를 강조한다.

책은 모두 4장으로 나누어졌는데 생활 속 법문 같기도 하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의식도 전달하고, 직접 불자들에게 일러준 여러 일화들로 바로 실행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스로가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과, 열심히 활동할 것, 바른 마음을 낼 것을 강조하는 저자의 생각이 녹아 있다.

"겸손과 하심이 몸에 배도록 하고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기 일을 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하여 내면과 외면이 잘 정리되면 자연히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스님은 겸손과 하심을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20세기 한국선사들 수행담 묶어

청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멀리 흐르네

동광 해두 기록/김홍원 외 편역
 정우서적 펴냄 | 1만5천원



1900년에 태어나 1976년에 입적한 동광 해두 선사(13세에 양산 통도사로 출가해 1919년 10월 밀양 표충사 내원 선원에서 처음으로 동안을 시작한 이래, 제방의 선원에서 안거를 하며 당대의 선지식(善知識)과 법가래(法去來)를 하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20세기 한국불교 선법의 역사(歷史)를 화려하게 장식한 선사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에는 용성(龍城), 혜월(慧月), 학명(鶴鳴), 만공(滿空), 성능, 한암, 고봉, 춘성, 금오, 동산, 전강, 향곡, 해암, 석두, 경봉, 효봉, 청담, 구산, 목담 스님 등 제 선사와의 법가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둘째, 진정한 대중 구제와 포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한다. 동광선사는 식민지 시절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해 지암을 배우고 고통 속에 빠진 이들을 견져주었다. 수월 스님이 절신을 삼아 대중에게 나눠 주었다는 일화로 유명하지만 동광선사의 중생 구제는 화광동진의 대승 보살의 울골은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투박할 정도로 솔직담백한 선사의 수행일기를 통해 범가량하는 모습과 제 의례와 근현대 불교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법화살림, 화엄살림, 유마경살림, 정토산림 선리살림, 관음기도 등 7일 살림의 모습들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 책은 동광 선사 경사록과 수도전법기를 합편한 것이다. 경사록은 동광 선사의 지난 일의 기록인데 편이상 11편으로 나누었으며, 수도하고 전법한 수도전법기는 10대에서 70대까지 6편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동광 선사 연표'와 '동광 선사 유교 목록' '동광 선사 유물 목록'을 편재해 동광선사의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에서의 행복이란 바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행복에 이르는 열가지 습관
 수진보리화 외나잇 지음 | 정명 스님 번역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3800원



"정진(viriya)이란 벽지불처럼 홀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혹은 (벗) 다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제자로서

의 지혜(깨달음)를 얻기 위하여 보시와 같은 훌륭한 공덕행을 누적시켜 감에 있어 인욕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이라 한다. 인욕(khanti)이란 화를 참는 것이다. 보시행, 계(戒) 등을 지남에 있어 거짓이 없고 진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진실(sacca)이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결의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익한 행을 할 수 있다. 모든 목적인 것을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지내는 것, 이것이 결의이다.

보시와 지계 등의 토대인 자애는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바라는 것이다. 다른 중생들의 행동이나 겪게 되는 상황에 마음의 치우침 없음이 평온이다.

그러므로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며 수행을 한다면 계와 선정(定) 그리고 지혜(慧)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닦는 과정에서 정진바라미 등이 닦여진다."

이 책은 태국의 세계적인 명상수행가이자 아비담마 전문가인 수진 보리화나잇(Sujin Boriharnwanaket)의 <The perfections leading to enlightenment>의 번역서이다. 이 책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에 관한 이야기이다.

불교에서의 행복이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니르바나(열반)라고 하는데, 이 열반을 증득하려면 필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이 바로 십바라미(보시·지계·홀리·지혜·정진·인욕·진실·결의·자애·평온바라미)이니 십바라미는 '열 가지 수행성취의 조건'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많은 수행자들은 수행성취를 위해 웅맹정진한다. 열심히 하기에만 하면 수행은 성취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행 성취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조건을 만나게 될 때 이뤄지

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성취 조건이 무엇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수행성취의 조건 십바라미'이다. 이 책은 가까이 가운데 소부(小部)의 소승(小論) 및 불소행장(佛所行藏)과 그 주석서를 근간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바라미를 설명할 때 다른 나가야에 있는 붓다의 말씀도 인용해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책 내용을 따라 수행자가 자신을 돌아본다면 수행성취의 조건을 어느 정도 구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추가적으로 닦아나가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수행을 하다 보면 옆의 도반은 어느 정도의 수행성취를 보일 것인지 대략적인 느낌이 온다. 그리고 수행이 정제된다면 그것의 원인은 어떤 것일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이 책의 십바라미에 근거한다.

태국의 세계적인 명상수행가
 열반 증득...10바라미 필요해

저자 라디오로 50년간 포교

수행을 지도하다 보면 인색한 수행자, 도덕적이지 못한 수행자, 탐욕스러운 수행자, 지혜가 없는 수행자, 게으른 수행자, 참을성이 없는 수행자, 진실성이 부족한 수행자, 의지가 약한 수행자,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수행자, 평온을 잃은 수행자는 반드시 장애를 만나서 수행터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 모두는 수행성취의 조건을 구족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이 책은 수행자들을 위한 전문서이지만 괴로움의 소멸을 갈구하고 있다면 이 책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저자는 'The Dhamma Study and Support Foundation'의 창립자로 매일 라디오를 통해 불교를 전파하고 있으며, 50여년 이상을 불교를 가르쳐오고 있다. 그녀의 책은 태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여러나라에서 출판되었다. 저자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불교도협회의회(Buddhisam Award Committee)주관의 '결실한 여성성'을 방콕의 UN본부에서 2007년 3월 수상하였다.

김주일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좋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져나가는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전자식 2종문 3중정보 특한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정보불전함

서원불교 핫 043-647-2378, 011-467-1472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안족열양발)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기압 체험

자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 호흡 100% 피로회복, 기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기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스트레칭필, 칼라차크라, 용천보탑, 배요온대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할매에 긴급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사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사일영 010-3527-1037
 팀장 정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